

# 대인불안의 측정에 대한 연구

김 남 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인불안 측정도구의 필요성을 생각하여, Leary(1983)의 대인관계 불안 척도(IAS)를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문항-총점간 상관은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으며,  $\alpha$  계수도 높게 나와서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여 주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원 연구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이었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다른 척도와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IAS는 STAI-특질 척도, BDI, 그리고 SCL-90-R의 대인민감성 증상차원과 유의하게 상관되었다. 예언한 바와 같이, IAS는 이 세 척도 중에서 SCL-90-R의 대인민감성 차원과 가장 높게 상관되었다. 앞으로 대학생 집단뿐 아니라 일반인 집단에까지 표집의 범위를 넓혀서 IAS의 타당도를 알아 보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으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번안한 IAS를 대인불안의 측정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인불안(social anxiety)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로서, 개인의 사회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인불안 주제는 일반적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다른 부적응적 정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다. 근년에 와서야 대인불안의 상관,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인불안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성향적 대인불안을 측정하는 몇 개의 자기 보고형 척도들이 개발되었다(예, Cheek & Buss, 1981; 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Watson & Friend, 1969). 성향적 대인불안을 측정하는 척도들은 대부분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들과 대인불안의 지표가 되는 망설임, 회피행동 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묻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Leary(1983)는 대인불안 척도에 주관적 불안과 그에 수반하는 행동이 혼입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대인불안의 정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다.

대인불안은 사회적-평가적 상황에서의 걱정, 자기 의식(self-consciousness), 정서적 고통 등을 포함한다(Leitenberg, 1990). 그리고 그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망설이고 회피하는 행동과 생리적 반응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인불안의 조건으로 높은 생리적 각성(arousal) 수준, 타인이 자기를 부정적

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 그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위협적 대인 상황에 대한 회피 행동을 들 수 있다(Beidel, Turner, & Dancu, 1984). 즉 대인불안의 정의에 사회적 상황에 대한 4 가지 반응 조합이 포함될 수 있다: 생리적, 행동적, 정서적 및 인지적 반응. 이 4 가지 반응들중에서 어느 것들을 대인불안의 정의에 포함하느냐 하는 것이 연구자들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인불안 개념의 정의와 연구방법론에서 혼란을 가져 왔다. 따라서 대인불안에 대한 합의적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불안은 생리적 각성과 곧 다가올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인지적-정서적 반응이다. 따라서 대인불안도 걱정, 불안, 공포와 같은 주관적 경험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인불안을 “실제적이거나 상상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적 평가가 실재하거나 예상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불안”으로 정의하는 Leary 등(Leary, 1982; Schlenker & Leary, 1982)의 정의가 적합해 보인다. 주관적 불안감에 회피 같은 행동적 반응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겠으나, 둘은 서로 구별된다. 즉 주관적으로 불안을 느껴도 회피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주관적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대인관계를 꺼릴 수도 있다. 따라서 대인불안의 정의에서 행동적 반응을 배제하고, 인지적-정서적 반응만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인불안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척도가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순수한 “성향적” 대인불안의 측정 도구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주관적 불안은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도, 대인접촉을 꺼리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적 상황에서 주관적 불안을 느끼지 않지만,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여 대인접촉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대인불안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내향성이나 낮은 사회성이 언제나 대인불안에 동반적이지는 않다(Cheek & Buss, 1981). 대인불안은 대인불안에 자주 수반되는 회피행동 같은 특정한 행동 패턴으로부터 개념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행동적 반응을 배제하고 인지적-정서적 반응만을 포함하는 성향적 대인불안 척도가 있어야 대인불안을 구성하는 생리적, 행동적, 정서적 및 인지적 반응들 사이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Leary(1983)는 대인불안을 회피행동 등의 행동적 반응을 배제하고 인지적-정서적 경험으로 보는 정의에 입각하여, 성향적 대인불안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형 척도를 개발하였다. Leary는 사회적 상황을 교호적(contingent) 상황과 비교호적(noncontingent)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교호적 상황에서는 데이트하는 두 사람의 경우처럼, 한 사람의 반응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수반적이다. 비록 각자가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지만, 대체로 한 사람의 행위는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 있다. 비교호적 상황에서는 교과내용에 따라서 강의하는 강사의 예처럼, 개인의 행동은 미리 세운 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사람의 반응은 단지 최소한의 영향을 줄 뿐이다. Leary는 대인불안의 유형으로서, 교호적 상황에서의 불안을 대인관계 불안(interaction anxiety), 비교호적 상황에서의 불안을 청중 불안(audience anxiety)으로 구분하였다. Buss(1980)도 대인불안의 두 가지 형태로 수줍음(shyness)과 청중 불안으로 구분한 바 있었다. 이런 구분에 따라서 Leary(1983)는 성향적 대인관계 불안 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와 성향적 청중 불안 척도(Audience Anxiousness Scale)를 개발하였다.

그 후에 Leary 등(Leary, 1986; Leary & Atherton, 1986; Leary, Kowalski, & Campbell, 1988)은 성향적 대인관계 불안 척도(IAS; Leary, 1983)를 사용하여 대인불안 집단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Leary(1986)의 연구에서 높은 IAS 점수를 받은 피험자들은 낮은 점수의 피험자들에 비해 대인교류 경험 상황에서 더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음이 불안 지표인 생리적 측정치(맥박을 변화)상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불안에 대한 대표적인 인지적 접근인 자기제시 모형(self-presentation model; Schlenker & Leary, 1982)에서 예언한 대로, 높은 IAS 점수를 받은 대인불안 집단

은 낮은 점수를 받은 피험자집단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목적인 기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더 낮았다(Leary & Atherton, 1986 ; Leary et al., 1988).

대인불안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성인의 15-20% 정도가 대인불안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Pilkonis, Feldman, Himmelhoch, & Cornes, 1980). 아직 정확한 통계치가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수치의 사람들이 대인불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인불안 문제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인불안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불안을 간편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필요성을 생각하여, Leary (1983)가 개발한 대인관계 불안 척도를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Leary는 대인관계 불안 척도와 청중 불안 척도를 개발하였으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고통받기 쉬운 대인불안은 교호적 상황에서의 불안일 것으로 생각되어 대인관계 불안 척도만을 번안하였다. Leary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불안 척도는 청중 불안 척도에 비해서, 대인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 많이 쓰이는 대인회피 및 심통 척도(SAD ; Watson & Friend, 1969)와 더 높게 상관되었다. 본 연구는 번안한 IAS를 국내 대학생 집단에 실시하여 내적 합치도와 신뢰도를 알아 보고, 국내에서 이미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인불안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척도들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IAS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한다.

### 대인관계 불안 척도의 구성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언어적 심리검사를 우리나라 말로 번안하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문항 원

표 1. 대인관계 불안 척도 문항

1.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에서조차 자주 불안을 느낀다.
2. 나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대개 불편함을 느낀다.
3. 나는 이성에게 말을 할 때 대개 편안하다.\*
4. 나는 선생님이나 상사에게 말을 해야 할 때 불안해진다.
5. 나는 사교적 모임(파티)에서 자주 불안하고 불편해진다.
6. 대인관계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수줍음을 덜 타는 편이다.\*
7. 나는 동성이라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때때로 긴장을 느낀다.
8. 만약 직장을 구하기 위한 면접시험을 보게 된다면 나는 초조할 것이다.
9. 나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10. 나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좀처럼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11. 대체로 나는 수줍은 사람이다.
12. 나는 매력적인 이성 동료와 이야기할 때 자주 불안을 느낀다.
13. 나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자주 불안을 느낀다.
14. 나는 권위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과 말할 때 불안해진다.
15.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나는 대개 마음이 편안하다.\*

주 : 각 문항에 대해 피검자는 “그 문장이 당신의 특징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 하는 정도”를 다음의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요구되었다: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약간, 상당히, 매우 잘, 완벽하게 나타난다.

(\* ) 표시 문항은 역방향으로 채점하여 합산한다.

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하면서 그 내용이 지니는 사회문화적 의미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번안 과정에서 원문에 충실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의미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 문화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심리학 교수,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영문학 교수, 그리고 연구자가 각각 번역한 것을 토대로 하여, 영어 문화권에서 임상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심리학 교수와 연구자가 합의하여 최종 문항을 작성하였다.

Leary(1983)가 개발한 대인관계 불안 척도는 총 1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그 문항이 피검자의 특성을 얼마나 잘 기술하는가 하는 정도를 5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15문항 중 4개 문항은 역방향으로 점수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대인관계 불안 척도 문항은 표 1과 같다.

### 신뢰도 검토

#### 내적 합치도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 및 문항간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 소재 4개 대학 남녀 대학생 237명(남학생 121명, 여학생 116명)에게 대인관계 불안 척도를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남녀대학생 237명에 대해서 문항과 검사 총점간의 상관관을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문항과 총점간 상관

문항 번호	r	문항 번호	r
1	.59*	9	.70*
2	.72*	10	.66*
3	.57*	11	.70*
4	.58*	12	.61*
5	.63*	13	.63*
6	.64*	14	.60*
7	.62*	15	.38*
8	.56*		

\*  $p < .001$

표 2에서 모든 문항들은 검사 총점과 높은 상관관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IAS가 높은 내적 합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2에서 검사 점수와 문항간 상관관이 가장 높은 문항은 11번 문항 “대체로 나는 수줍은 사람이다”이었으며, 상관관이 가장 낮은 문항은 15번 문항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나는 대개 마음이 편안하다”로서 역방향으로

채점되는 문항이었다. Leary(1983)의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들의 문항-총점간 상관관이 .50이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15번 문항의 문항-총점간 상관관이 다소 낮았으나,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였으므로 그대로 척도에 포함시켰다.

동일집단에서 Cronbach의  $\alpha$  계수를 산출해 보니 .88이었다. Leary(1983)의 연구에서는 IAS의  $\alpha$  계수가 .89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alpha$  계수는 Leary의 연구에서 산출된 수치와 거의 같다.

#### 검사재검사 신뢰도

대인관계 불안 척도를 서울 소재 2개 대학 남녀 대학생 총 65명(남학생 42명, 여학생 23명)에게 3주일 간격으로 검사와 재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해 보니, 검사 점수간 상관관이 .70이었다.

Leary(1983)의 연구에서는 8주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는 Leary의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이다.

### 다른 척도들과의 관계

대인불안 척도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번안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인불안 척도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척도들과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피검자 집단은 서울 소재 3개 대학 남녀 대학생 84명(남학생 42명, 여학생 42명)이었다. 대인관계 불안 척도와 다음의 3개 검사를 무선적 순서로 묶어서 피검자들에게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사용된 검사도구는 아래와 같다.

#### (1) Spielberger의 상태-특질 불안 척도

Spielberger(1970)의 상태-특질 불안 척도(STAI)를 김정택(197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AI의 특질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2) Beck의 우울 척도

Beck(1967)의 우울 척도(BDI)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 SCL-90-R의 대인민감성 척도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간이 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에서 대인민감성(Interpersonal Sensitivity; I-S) 증상차원 9 문항을 사용하였다. 김광일 등에 의하면, I-S 차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편감, 부적합감, 및 열등감 등을 측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인불안만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검사 중에서 SCL-90-R의 I-S 하위척도가 대인불안과 가장 관계가 깊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대인불안 척도는 일반적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와 유의하게 상관되었다(예, Watson & Friend, 1969). 또한, 대인불안이 우울과 상관됨을 보이는 연구들도 많았다(예, Alfano, Joiner, & Perry, 1994; Ingram, 1989). 따라서 IAS는 STAI-특질 척도나 BDI와 상관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그러나 대인불안이 일반적 불안이나 우울과 다른 구성개념이고, IAS가 대인불안을 타당하게 측정한다면, IAS는 STAI-특질 척도나 BDI 보다는 SCL-90-R의 I-S 척도와 더 높게 상관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IAS와 다른 척도들간의 상관은 표 3과 같다.

표 3. IAS와 다른 척도들간의 상관

	IAS
STAI-Trait	.44**
BDI	.34*
SCL-90-R(I-S)	.58**

\* $p < .01$ , \*\* $p < .001$

IAS가 다른 두 척도에 비해서 SCL-90-R의 I-S 척도와 가장 높게 상관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상

관 계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IAS와 STAI-특질 척도 간의 상관 계수와 IAS와 BDI 간의 상관 계수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1.16, p > .05$ ). IAS와 STAI-특질 척도 간의 상관 계수와 IAS와 SCL-90-R의 I-S 척도 간의 상관 계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20, p < .05$ ). 또한, IAS와 BDI 간의 상관 계수와 IAS와 SCL-90-R의 I-S 척도 간의 상관 계수의 크기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10.41, p < .01$ ). 즉, IAS는 다른 두 척도에 비해서 SCL-90-R의 I-S 척도와 더 크게 상관되었다. SCL-90-R의 I-S 척도가 대인불안과 가장 관계가 깊은 척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미리 예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IAS는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는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성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우리말로 된 자기 보고형 검사를 개발하려는 것이었다. 대인불안 때문에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대인불안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우선 교호적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성향적 대인불안을 측정하는 Leary(1983)의 IAS를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번안한 IAS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심리 측정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치를 보여 주었다. 번안한 IAS는 높은 내적합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 문항과 총점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으며, Cronbach의  $\alpha$  계수도 높게 나왔다. 그런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원 연구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본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한 표집이 Leary(1983)의 연구에 비해서 더 동질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Leary의 연구에서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한 표집이 대학

생 집단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재 검사 신뢰도 산출 표집은 남학생 집단의 경우에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특수교육을 받는 4년제 대학 학생들이었으며, 여학생 집단은 여자대학 학생들이었다. Leary의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단의 점수 분포를 비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재검사 신뢰도 산출 집단이 일반 대학생 집단에 비해서 더 동질적일 가능성이 있다. 표집이 동질적이면 이질적인 표집에 비해서 상관계수로 산출되는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더 낮게 나온다. 앞으로 대학생 집단뿐 아니라 일반인들을 포함하는 이질적 표집을 대상으로 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는 추가적 연구가 요망된다.

IAS와 다른 척도들과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선행연구들에서 보여준 대인불안 측정 척도들의 특성과 대체로 일치되었다. IAS는 STAI-특질 척도와 상관되었으며, BDI와도 상관되었다. 예언한대로, IAS는 다른 두 척도에 비해서 SCL-90-R의 I-S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주었다.

대인불안 측정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 대인불안 척도는 일반적 불안 검사와 높게 상관되었다. 예를 들어서, 대인불안 척도로 많이 쓰이는 Watson과 Friend (1969)의 SAD는 Taylor(1953)의 표출불안(manifest anxiety) 척도나 Ender와 Hunt(1966)의 불안 척도(S-R Inventory of Anxiousness)와 유의미하게 상관되었다. 대인불안은 일반적 불안과는 별개의 구성개념이지만, 두 구성개념은 서로 상관된다.

근래에 대인불안이 우울과 상관됨을 보여 주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다(Alfano et al., 1994; Ingram, 1989; Johnson, Johnson, & Petzel, 1992). 대인불안이 우울과 상관을 보이는 이유는 대인불안과 우울이 부정적 귀인 유형과 같은 인지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이거나(Alfano et al., 1994), 대인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기 어려워서 우울해지기 쉽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Johnson et al., 1992).

본 연구에서 예언한대로, IAS는 STAI-특질 척도나

BDI에 비해서, SCL-90-R의 I-S 척도와 가장 높게 상관되었다. SCL-90-R의 I-S 척도는 대인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감이나 부적합감을 측정한다. 따라서 대인 관계 상황에서의 불안을 측정하는 IAS가 SCL-90-R의 I-S 척도와 높게 상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IAS가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을 측정하는 타당한 검사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검사들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는 연구결과만 가지고 새로 개발된 검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검사의 타당도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려면 많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번안한 IAS의 타당도를 좀더 명확하게 알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진단평가된 임상적 대인공포 집단, 비임상적 대인불안 집단, 및 정상 집단에 IAS를 실시하여, 집단 사이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번안한 IAS의 신뢰도 및 다른 척도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대인교류 상황에서의 성향적 불안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번안한 IAS의 사용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집단이 대학생 집단이므로 번안한 IAS는 대학생 집단의 대인불안 측정과 연구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일반 집단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IAS의 타당도에 관해서 알아 보는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IAS는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는 교호적 대인관계에서의 성향적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성향적 청중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IAS는 행동적 반응을 배제하고 정서적-인지적 반응만을 포함하고 있다. 대인불안은 생리적, 행동적, 정서적 및 인지적 반응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4 가지 반응들은 밀접히 관련되나, 서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주관적 불안감과 회피행동

같은 특정한 행동 패턴은 개념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 그런데 정신장애의 분류체계의 진단 기준에는 특정 장애의 증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대인상황 회피 등의 행동은 대인공포 집단의 주요 증상의 하나이다. 따라서 임상장면에서 대인공포 집단을 진단하는 검사도구에는 대인불안의 정서적-인지적 반응뿐 아니라 회피행동 같은 행동적 반응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보아진다. 본 연구에서 변이한 IAS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을 어느 정도 경험할 것인가 하는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대인불안의 생리적, 행동적, 정서적, 및 인지적 반응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 보는 연구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광일·김재환·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김정택.(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이영호·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Alfano, M.S., Joiner, T.E., & Perry, M. (1994). Attributional style: A mediator of the shyness-depression relationship?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287-300.
- Beck, A.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eidel, D.C., Turner, S.M., & Dancu, C.V. (1984). Physiological,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social anxiety.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23, 109-117.
- Buss, A.H.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Freeman.
- Cheek, J.M., & Buss, A.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Endler, N.S., & Hunt, J.M. (1966). Source of behavioral variance as measured by the S-R Inventory of Anxiousness. *Psychological Bulletin*, 65, 336-346.
- Fenigstein, A., Scheier, M.F., & Buss, A.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Ingram, R.E. (1989). Unique and shared cognitive factors i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Automatic thinking and self-appraisal.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 198-205.
- Johnson, K.A., Johnson, J.E., & Petzel, T.P. (1992). Social anxiety, depression, and distorted cognition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1, 181-185.
- Leary, M.R. (1982). Social anxiety. In L. Wheel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 Beverly Hills, CA: Sage.
- Leary, M.R. (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 66-75.
- Leary, M.R. (1986). The impact of interactional impediments on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122-135.
- Leary, M.R., & Atherton, S. (1986). Self-efficacy, social anxiety, and inhibition in interpersonal encount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256-267.
- Leary, M.R., Kowalski, R.M., & Campbell, C.D. (1988). Self-presentational concerns and social anxiety: The role of generalized impression expectanc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 308-321.

- Leitenberg, H. (Ed.) (1990).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New York : Plenum.
- Pilkonis, D.A., Feldman, M., Himmelhoch, J., & Cornes, C. (1980). Social anxiety and psychiatric diagnosi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 13-18.
- Schlenker, B.R., & Leary, M.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8.
- Spielberger, C.D., Gorsuch, R.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Press.
- Taylor, J.A. (1953). A personality scale of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8, 285-290.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A Study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Anxiety**

**Kim, Nam Jae**

Duk Sung Women's University

An attempt has been made to develop a self-reported scale to measure the dispositional social anxiety. This study translated Leary's(1983)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IAS) in Korean and explor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IAS. The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were psychometrically approvable. The IA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TAI-Trait scale, BDI, and the Interpersonal Sensitivity(I-S) symptom dimension of SCL-90-R. As predicted, the IAS was more highly correlated with I-S of SCL-90-R than STAI-Trait or BDI.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n-version IAS can be used to measure the interaction anxiousness in college students.